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6월 8일(일) 제1543호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 막 오른다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

2025 차세대 '어드벤처' 시작!



2024 마리아행전 '어드벤처'

6월 11~12일 각 캠퍼스 본당, 13일 양재 사랑홀 이훈 목사, 정갑신 목사,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드디어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의 막이 오른다. 6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오전 10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6월 11일(수)과 12일(목)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집회 실황을 각 캠퍼스에 전송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는 예배 중계를 하지 않는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마리아들은 양재 사랑홀, 캠퍼스 마리아들은 소속 캠퍼스 본당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면 된다. 마지막 날인 13일(금)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마리아가 한 자리에 모여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마리아행전 참가를 원하는 마리아들은 참가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토요일예배(7일), 일요일예배(8일)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일 회비는 4만 원(간식, 물 포함)이다. 6월 10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마리아행전 참가자들은 밝은 색 상의와 짙은 색 하의를 입어야 하고, 등록 팔찌는 집회 기간 내내 착용해야 한다. 특히 집회 기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교회와 양재역 주차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에서는 이훈 목사(길벗다문화센터) '평강에서 평강으로' (사 26:3),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평강의 길, 짐과 쉼' (마 11:28-30), 이재훈 위임목사 '평강을 누리는 영혼의 기도' (시 131편)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세상의 염려가 아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며 "그 평강 안에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리아행전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문의: 02-3215-3667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함께 만드는 기독 콘텐츠!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CGN이 성도들과 함께 기독 콘텐츠를 제작한다.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이 열린다.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구성된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6월 22일(일)까지 구글폼(QR 참고)으로 기획안을 접수하면 된다.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은 1차 서류심사(6월 30일~7월 3일), 2차 PT 심사(7월 7~10일)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대상(1팀) 300만 원, 2등(1팀) 100만 원, 3등(2팀) 50만 원을 준다. 공모 부문은 'CGN TV'와 '기독 OTT '풍당' 및 CGN 유튜브 채널'이다. 두 플랫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콘텐츠를 제안하면 된다.

문의: 02-796-9800



/ 홍하영 기자

법과 정의, 그 너머의 진리를 향해!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 6월 16일 오후 6시45분 서빙고 본당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 (부제: 법과 정의, 그 너머의 삶)가 6월 16일(월) 오후 6시 45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행사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로비에서 등록 확인을 하고, 오후 6시 10분부터 본당에 입장할 수 있다.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법조인맞춤전도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법조인을 초대해, 인간의 정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소개하는 축복의 장(場)이다. 식사, 공연, 메시지, 축복의 시간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손범수, 진양혜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가스펠 보컬 밴드 크룩스, 가수 선예, 소프라노 강혜정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전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홍보부스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에 초대 대상자인 법조인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참가신청 3일 이내 접수 확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준다. 접수 확인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저스티스포유' 채팅창에서도 할 수 있다.

한편 법조인맞춤전도집회를 위한 '요청자기도모임'이 지난 5월 26일(월)과 6월 2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요청자들이 함께 모여 초대 대상자인 법조인과 전도집회를 위해 기도했다. 전도방법 교육, 집회 준비 안내, 초대장 및 주차증 배부 등도 했다.

양용 장로(법조인맞춤전도집회 기획팀장)는 "많은 법조인이 법조인맞춤전도집회에 와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정의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6월 비전현금, 대학청년부 여름 사역 후원

6월 7-8일 봉헌하는 6월 비전현금은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 및 단기선교'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올해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는 'D to V'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D-day)에서 다시 오실 승리의 그날(V-day)을 향하여)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 아웃리치 56개 지역 133개 팀 2,827명, 해외 아웃리치 28개국 63개 팀 919명이 각 지역으로 흩어진다(6월 4일 기준).

국내팀은 고양, 남양주, 강동 등지에서 군 장병 초청잔치, 어린이사역 등을, 해외팀은 일본, 과테말라, 케냐 등지에서 어린이 캠프, 난민사역 등을 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바로 세우시는 세 단계 과정을 보여 주십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승리를 먼저 보여 주시는 단계입니다. 둘째, 어린양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맞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적인 권력과 싸우며 죽기까지 증거함으로써 이 승리에 동참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회개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하심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임하면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증인들을 통해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속해 우상숭배하는 거짓된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어린양을 따른 이들에 대한 최후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에 처하는 이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가지 할렐루야의 내용

<요한계시록> 17~18장에서 큰 창녀와 큰 도성으로 표현되는 우상숭배 세력에게 심판이 임함으로 큰 슬픔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큰 도성 바벨론의 엄청난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멸망 당한 뒤 성도들이 기뻐하며 큰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찬송과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도성 바벨론이 멸망 당함으로 슬퍼하는 노래가 세 번 나오는데, 19장 시작과 함께 나오는 찬양들이 이와 대조됩니다. 큰 도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슬퍼

하는 노래와 큰 하나님의 무리, 성도들의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대조됩니다. 어떤 면에서 바벨론의 존재는 어린양과 신부의 결혼식 준비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엄청난 압박과 유혹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불로써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네 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문구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두 가지 면에서 <시편>과 흡사합니다. 첫째, 다양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을 탄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할렐루야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많은 무리가 큰 함성으로 외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것임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보류했던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둘째, 그 무리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셋째, 24장도와 4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고백합니다. 넷째, 다시 많은 무리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가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고, 강한 천둥소리처럼 외쳐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제 어린양의 결혼잔치가 이르렀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어린양의 결혼식에 신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어린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6~8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통치하시고,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며 행하시는 마지막 완성은 어린양의 결혼식입니다. 어린양의 결혼식에 의로운 행실로 덧입은 밝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7~18장에 나타난 큰 음녀로 표현된 여인과 정반대입니다. 바벨론의 여인은 온갖 화려한 보석과 옷으로 장식하고 있었으나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불결한 것들로 가득했지만, 정결한 신부는 의롭고 순결한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여인이 죄와 타락, 슬픔과 파멸의 모습이었다면, 정결한 신부는 생명과 승리, 의와 기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늘나라의 청첩장

요한계시록 19:1~10

“우리의 옛 옷을 벗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의의 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기뻐하십시오.”

을 믿는 성도들은 어린양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9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어린양의 결혼잔치에 신부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미 알려 주신 바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호세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호 2:19-20).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신랑으로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소개했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요 3:29).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역을 동일한 맥락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고후 11:1-3).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 사역을 ‘약혼시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은 어린양의 결혼식에 신부로 초대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엡 5:22-24).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결혼인 것처럼, 구원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 신부로서 초대받은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우리의 ‘유일한 준비’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왕이 왕자의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니, 자격 없는 사람을 데려와 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왜 쫓아냅니까? 당시에는 왕이 초대를 하면 예복을 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준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나는 입던 대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내어 주는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고, 왕이 준비해 준 옷을 입는 것은 기쁨입니다. 왕이 준비해 준 옷 입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결혼식에 신부로서 참여할 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주신 옷을 입는 게 우리의 유일한 준비입니다. 정결하고, 의로운 행실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옷을 받습니다. 회개란 우리의 옛 옷을 벗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고,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세계관학교 특집

AI 이해와 온누리교회의 역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대해서 포스트휴먼 시대가 온다고 위협하는 미래학자나 과학자들이 있다. 그들의 견해는 주로 과거의 공상과학이 오늘날 현실이 된 것 같이 AI에 대한 상상이 미래에 현실화될 거라는 주장이다. 진화론적 시각에서 선각자들이 말하지만, 사람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세계관이 이렇다.

40년 전 인공지능연구를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그 시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오늘날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AI의 원리와 발전과정을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안목에 도움이 된다. AI는 사람의 지적능력(언어, 추론)과 인지기능(시각, 청각, 운동 등)을 컴퓨터에서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공상과학자들은 인간을 모사하는 ‘강한 AI’와 로봇을 연상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경제성 있는 도구로 특화된 ‘약한 AI’를 추구한다.

AI 연구는 1950년대에 태동하였고, 1980년대 규칙기반의 전문가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의 기본 원리도 이 시대에 개발되었다. 신경회로망은 사람의 뇌세포 구조를 모방해 개발되었고, 역전파 알고리즘(Backpropagation Algorithm)이 개발됨에 따라 선행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다

층구조의 학습능력이 가능해졌다. 이 방법을 개발한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 교수는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컴퓨터의 용량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으로 계산 능력이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심층학습모델(Deep Learning Model)의 실현이 가능해졌다. 심층학습모델이 세상의 관심을 얻게 된 계기는 2016년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알파고를 개발한 팀들이 생명과학의 난제인 단백질의 접힘 현상을 예측하는 알파폴드(AlphaFold)를 개발해 2024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이처럼 AI와 생명과학이 만나는 생명정보학(Bioinformatics)이 생명과학의 중심이 되었는데, 진화론자들이 조상이 없는 고아유전자를 발견하게 된 것은 창조기원 유전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징검다리라 되니,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실 것이다.

그동안 개발된 인공지능은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단답식 해답을 찾는 분류형이었다. 그런데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챗(Chat)GPT가 2022년 11월 출시돼 대화식 해답을 생성하면서 생성형 AI가 급속히 우리 일상과 산업에 확산되었다. 챗GPT는 그 이름에서 Generative(생성형), Pretrained Model(사전학습 모델), Transformer(단어 간의 연관성분석)의 접근

방법을 내포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이용해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방대한 지식을 비지도방법으로 사전학습해 상식적 대화를 지원한다. 성경지식이 인터넷 공간에 제공되고 이 사전학습과정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특정 전문지식은 지도학습으로 추가 학습한다. 문장요약, 보고서 작성, 번역, 프로그래밍 코드, 그림, 음악 등을 생성하는 역량을 보여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유익한 수준이 되는 것을 입증했다. 성경지식을 전도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학습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챗GPT의 10% 정도의 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딥시크(DeepSeek)가 개발되어 AI 개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쟁이 국가 간 경쟁력의 화두가 되고 있다. AI의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AI 전문가는 높은 연봉의 일자리를 얻지만, 단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AI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 감정, 윤리판단이 필요한 전문 업무는 대체하기 어려워 AI는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시대를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MZ세대에 대한 전도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도구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선교사를 현지로 파송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지

원해서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조합)로 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챗GPT 같은 도구가 사전학습 과정에서 기독교 자료를 학습하도록 인터넷 공간에 노출시키는 것이 온라인 전도활동과 같다. 아울러 기독교 자료를 추가 학습하도록 파인튜닝을 하는 것은 온라인 교회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같다. 이와 함께 ‘온누리선교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그동안 개발된 CGN, 두란노서원, 설교 및 교육 등 온라인 자료를 총망라할 필요가 있다. 문자와 영상, AI가 통합된 플랫폼으로 개발해 한국 교회와 세계선교단체가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온누리교회의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이런 도구에서 오는 것이 아님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변함없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부흥이 나오기 때문이다. 편의성만 추구하는 AI 도구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분별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재규 장로
(동대문중앙공동체, 카이스트 명예교수)

특별기고

크리스천은 문화와 어떤 관계일까?

문화는 항상 변한다는 게 특징이다. 문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꾸고, 입법하고, 발명하고, 관계 맺는 모든 종류의 인간 경험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변화가 더 깊고, 광범위하며, 문화의 변화가 더 근본적인 순간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난 변화의 폭이 엄청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 필자의 절친 오스 기네스는 21세기 미국 사회가 단순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점’에 있다고 했다. 서구 문명 자체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물론 역사는 문명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명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깨지면 그 문명의 미래가 없다. 오스 기네스가 지금을 문명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점에 있다는 뜻이다. 서구 문명이 새로워질까?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쇠퇴를 계속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구 문명의 쇠퇴가 하나님 나라의 쇠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서구 문명의 역사보다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서구 세계의 많은 이상이 기독교 신앙, 특히 도덕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에 의해 만들어지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쇠퇴는 참으로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이상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인 다른 문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서구 문명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기독교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이야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창조에서 새로운 창조로, 천지창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현실에 대한 설명을 고려할 때 이 문명의 역사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한순간은 이야기 속에 비춰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한순간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이야기의 관점에서 한순간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라는 그 이야기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누구이며,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주셨는데, 이는 서구 문화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변했다. 서구 문화를 지금의 모습

으로 만든 이념적 뿌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미래는 참으로 불투명하다.

좋은 소식도 있다. 이 문명사적 순간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우연히 이 시대의 문명사적 순간에 처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점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그분의 시간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분의 의도에 따라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다. 그렇다면 프란시스 웨퍼와 후에 척 콜슨이 물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유일한 방법은 소망에서 시작해, 기독교 세계관의 네 가지 근본적인 현실에 우리의 손과 머리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소망이 무엇인지 완전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망을 일종의 희망사항 정도로 잘못 정의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된 소망이다.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한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가 우

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고 경쟁 중인 다른 모든 세계관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알아야 한다.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문명사적 순간을 헤쳐 나가기 위한 또 다른 핵심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유일하고 정확한 정의를 제공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 하나님, 다른 사람,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는 분명한 소망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역사의 힘에 반하는 희생자처럼 느껴지기 쉽다. 문명이 향하는 곳에서 우리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명사적 순간에 부름을 받았고, 성경에는 현실과 인간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센터 대표)

원문: breakpoint(20250410)

맛있는 말씀 해설

“...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요 9:3)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었다. 그들에게 고통은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었다.

‘드러내시려는 것이다’의 원어 ‘파네로테’는 ‘드러내다’, ‘명백히 보이게 하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일이 단지 육체적 치유를 넘어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임을 암시한다.

우리는 ‘인과응보’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좋은 일은 내 노력의 결과이고, 나쁜 일은 내 잘못의 결과라고 여긴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려는 것이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우연적인 일들조차 다스린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나에게도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경험이 있다. 얼마 전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어릴 적 부모님

이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홀로 나와 여동생을 키우시느라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당신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고, 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엄마,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였다. 한 달 전 메시지였다. 그 순간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후회와 함께 어머니의 죽음이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하나님이 “네 엄마의 죽음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나의 뜻”이라는 분명한 마음을 주셨다. 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 어머니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네 잘못이 아니다. 내 계획이다”라는 내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연락하라’는 또 다른 마음을 주셨

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고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께 어머니의 소식을 알렸다. 어머니 장례 이후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긴 시간 사업 실패와 배신으로 많은 아픔을 겪으셨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믿음에서 멀어져 계셨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려 했던 것이구나. 믿음 없이 살아오신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아버지 앞에 세워놓으셨구나’를 깨달았다. 어머니는 이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고 계시지만, 아버지에게는 구원의 회복이 필요했다. 지금은 아버지도 교회에 나가시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작은 일까지 미친다”고 말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첫째,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분별하라. 둘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라. 셋째, 영적 멘

토와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라. 특히 고통 중에는 공동체의 위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등불이 된다.

〈잡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결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자기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 살되, 모든 결과를 내 책임으로만 여기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고통도 단순한 시련이 아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흑시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고통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신현민 목사
(평택온누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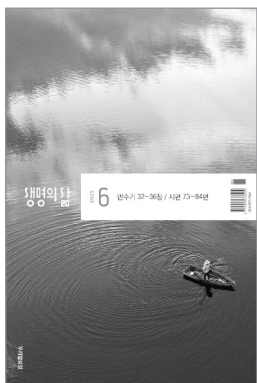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뜻을 따르는 공의로운 사회

6월 9일~6월 15일

〈민수기〉 35:9~36:13,

〈시편〉 73:1~74:23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별하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악의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가 사면을 받게 되는 도피성 제도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묵상하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단 동쪽과 서쪽에 6개 도피성을 두어야 합니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들고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는 땅을 더럽히기에 고의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목상포인트 2: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뭇게 여기지 않고 지켜내는 일은 중요하다. 〈민수기〉 마지막 장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믿음의 기업을 지켜내는 여인들의 모습을 묵상하자.

▶〈민수기〉 36장은 다시 슬로브핫 딸들의 기업 문제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슬로브핫 딸들의 요청으로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받도록 상속 규례를 정해 주셨다(27:1~11).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슬로브핫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해결 방안을 전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기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해 기업을 보존해야 한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자신들이 속한 지파의 기업을 지킨다.

목상포인트 3: 〈시편〉 73~89편은 5권으로 이루어진 제3권에 해당한다. 성도는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민족이 참담한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73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신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지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신앙을 회복한다. 〈시편〉

기자는 심판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참된 복이라고 고백한다.

74편: 성전이 파괴되고, 약속의 땅이 황폐해지며,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배경에서 지은 탄원시다. 〈시편〉 기자는 탄식하며 대적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잔혹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 〈시편〉 기자의 호소는 언약에 근거한다. 그는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에게서 건져내 주시기를 호소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실수투성이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용납하시듯,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자.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들의 기업을 지켰듯이, 우리 가족도 믿음의 유산을 힘써 지키자. ▶악인이 형통한 부조리한 현실을 볼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이라고 고백하자. ▶죄로 인해 고난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낙심될 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J와 N 부부를 위해서

우리 부부는 정년퇴임하고, 시니어(칼렙) 선교사로 서남아시아 A국에서 몇 년 동안 섬기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언어 장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교제를 나누며 큰 위로가 되어준 현지인 J와 N 부부와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에도 몇 차례 A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J가 노환으로 병상에 있고, N은 암 투병 중입니다. 얼마 전 J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A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했고, A국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님께 그들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이 흔쾌히 그들을 찾아가 밤늦도록 복음을 전하셨고, N이 눈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N의 아들도 복음을 듣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N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암을 이겨내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믿음의 제자이자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J가 남은 시간 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아들 A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ch 선교사(D공동체)

크리스천의 건강 그리고 생명

발 씻기와 손 씻기

〈요한복음〉 13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온다. 겔옷까지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준비한 대야에 물을 떠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세밀하고 철저한 예수님의 ‘발 씻기’ 기록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는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발은 몸의 어느 부위보다 많이 더럽혀지고, 지저분했을 것이다. 발에는 땀샘이 수도룩하다. 발을 씻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냄새 때문이다. 땀에 포함된 소금, 포도당, 비타민, 아미노산 등은 영양가가 높아서 박테리아의 훌륭한 먹이가 된다. 이틀에 한 번 발을 씻는 사람의 발에는 하루에 두 번 발을 씻는 사람보다 100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매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무좀은 곰팡이 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감염이다. 이 곰팡이 균은 따뜻하고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한다. 발가락 사이가 무좀에 가장 취약한 이유다. 발을 정기적으로 공들여 씻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이고, 박테리아와 곰팡이 증식, 굳은살, 건조하고 갈라진 발꿈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의학적이거나 세균학적 이유는 아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3~15절에서 그 뜻을 밝히신다.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타인을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친히 발을 씻겨 주셨다.

몇 년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본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수들이 세족식을 시행했다. 선생이신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 같이, 교수들이 입학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인 것이다. 신입생이 100여 명이 넘었지만, 30여 명의 남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예배를 겸한 은혜로운 세족식이 진행되었다. 장차 의사가 되면 교수들의 섬김을 본받아서 환자를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의 세족식이었다.

〈요한복음〉 13장 6~9절에서는 걱정적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손까지 씻어 달라고 요청한다. 오늘날처럼 모든 길이 거의 포장이 되고, 구두나 운동화를 신는 시대에는 발이 가장 더럽거나 세균이 많은 부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신체 중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손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미세한 침방울이 최대 6m 앞까지 튀어나간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침방울과 함께 주변 6m 내 모든 가구를 오염시킨다. 건강한 사람도 이 오염된 가구를 손으로 만지고, 그 손으로 코나 입을 만지게 되면 감염이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코로나 19 감염이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 19나 독감에 걸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손 씻기’이다. 흐르는 물에 비누거품을 이용해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흘러보내는 것이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이려면 100% 알코올에 손을 담가야 한다. 주위에 흔히 보이는 손세정제에는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100% 알코올에 손을 담그면 손이 금방 망가져서 적절하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하루 6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거품과 함께 손에 있는 바이러스를 흘러보내는 것이 독감과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는 최선의 예방법이다.

마스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보호한다. 마스크는 코로나 19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대화 상대방이 코로나 19 환자일 경우 그로부터 된 침방울이 나의 입과 코에 닿지 못하게 막아 준다.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했을 때,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가 팔꿈치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모습을 보았다. 부모가 가르친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철저하게 기침 에티켓을 교육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에 아기를 보내면 일 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다. 아기들에게 기침 에티켓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들이 기침할 때 침방울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이다. 유치원에서 영어보다 먼저 이런 기본적인 기침 에티켓과 손 씻기를 가르쳐 아이들을 감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베드로의 요청처럼 발보다 손을 먼저 씻어 주시리라 믿는다.



이철 장로
(OCC 공동체, 하나로 의료재단 명예 원장, 전 연세의료원장)

정주호의 홀리바디(Holy Body)

세상 최고보다 하나님의 최선!

얼마 전 한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다. “왜 이 학교를 선택했습니까?”라는 질문의 대답이 대부분 동일했다.

“서울대를 못 가서 여기로 왔어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심각한 열등감 내지는 낮은 자존감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를 못 가서 예일을 갔어요”라는 말인데, 실제로 해외 사회에서는 그런 대답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처럼 서울대 하나만 최고의 대학으로 일컫지도 않을뿐더러 각각의 학교가 저마다 특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의 에모리대학교를 합격한 학생을 만났다. 그 학생은 자신이 더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것을 우울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여전히 한국식 열등의식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의 2,600개 대학 중에서 무려 24위권에 해당하는 상위 학교에 합격해 놓고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 실로 놀라웠다. 이는 우리나라 입시 문화 이전에 경쟁 문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더 본질적으로는 비교문화에서 비롯된 열등감이자 낮은 자존감이다. 더 깊은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제도를 통한 학문적 성취만이 유일한 출세와 관직의 길이였다. 유교 문화가 학문만을 숭상하면서 자녀의 출세가 부모의 체면을 세운다고 생각해 집안을 일으키는 기준이 된 것도 한몫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이유로 대학의 서열화가 시작되고, 서열이 높은 대학은 공직이나 대기업 입사와 더불어 안정되고 여유로운 신혼 귀족층과 같은 삶을 보장한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처구니없게도 공교육 선생님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사설학원 강사들이 마치 대한민국 교육 선봉장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해주는 국가 교육의 멘토처럼 방송이나 세미나에 나와서 열변을 토해낸다. 학부모들이 줄지어 찾아가서 손뼉 치며 공감하고 찬사를 하는 등 학원 문화를 부추기고 드높이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필자가 과거 이스라엘에서 본 장면이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게 머리를 스쳤다. 통곡의 벽을 방문했을 때 고사리 같은 양손으로 그 큰 〈토라〉를 읽는 어린아이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 문화에서는 5~6세가 되는 어린이들이 글을 배우면 가장 먼저 읽는 게 〈토라〉다. 〈토라〉는 성경의 모세오경에 해당되는데, 도덕과 종교, 법률과 예배 등

유대인의 모든 삶의 규율을 기반으로 쓰였다. 〈토라〉를 해석하고, 적용한 전통적인 주석이 바로 〈탈무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 나뭇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 간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바라보는 교육의 가치관이 겨우 입시경쟁이나 비교문화에서 허우적대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교육은 곧 입시가 되고, 입시는 곧 일류대학, 일류대학은 곧 부귀영화와 성공으로 가며 ‘맘몬’을 섬기는 물질문화를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 크리스천은 이러한 물질주의적 맘몬의 비교사회, 경쟁사회, 입시사회에 지배당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단단히 서야 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이자 선이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믿는 것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보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 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자녀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통해 양육한다. 자녀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대학에 들어가도록 맹목적인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는 공부나 대학, 성공보다 훨씬 중요하고,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 질서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학생이든 청년이든 부모든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 물질주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 성장하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연봉 좋은 직장을 얻고도 먼지처럼 소멸하는 인생의 시간만 소비할 뿐이다.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참 목적을 발견하기를 건강 전도사 정주호가 응원한다.



정주호 대표
(중종로공동체, 스타트레인대표, 재화와 학박사)



CGN 신규 콘텐츠 '어쩌다 시골살이' 스틸 컷

CGN 신규콘텐츠 '어쩌다 시골살이'

MZ세대 목사 부부의 휴먼다큐멘터리

CGN 신규 콘텐츠 '어쩌다 시골살이'가 지난 5월 30일(금) 공개됐다. '어쩌다 시골살이'는 도시에서 사역 하던 MZ세대 목사 부부(박지현, 서유미)가 충청도 끝자락(논산시 양촌면 신기리)으로 이주해서 복음을 전하는 휴먼 다큐멘터리다.

도시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던 중에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된 박지현 목사가 고민 끝에 '시골살이'를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선물 같은 일상을 만났다. 주민 대부분이 70~80대인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에서 유일한 어린이인 박 목사의 아들 수호(5세)

와 주민들이 보여주는 호흡이 무척 흥미진진하다.

박 목사 가족이 시골에서 어르신들을 전도하며 사역의 소중함과 기쁨을 회복하는 힐링 다큐 '어쩌다 시골살이'는 기독교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7월 4~5일 일본 요코하마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가 7월 4일(금)부터 5일(토) 일본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과 혼고다이 그리스도교회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전 4:9)를 주제로 열린다.

7월 4일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에서 'The Way' 집회, 7월 5일 혼고다이 그리스도교회에서 'YUME Conference'를 한다.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에서는 이서진 목사님과 사기사가 타이치 목사가 설교

한다. 'YUME Conference'에서는 패널토의, 소그룹 쉼어링, 레크리에이션, 팀 발표, 집회 등을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은 이메일(2myo0@naver.com)이나 전화(02-3215-3759)로 신청하면 된다. The Way 관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 본부와 온누리대학청년부가 협찬한다.

문의: 02-3215-3759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입양·위탁·결연·지원세미나 개최

6월 15일 오후 5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사회선교본부 제이홈 사역팀(입양위탁가정 공동체)과 울타리사역팀(보육원 아동 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역팀)에서 '입양·위탁·결연·지원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15일(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여정'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순영 자매

(공개입양인, 입양인 권익활동가)가 강의하고, 제이홈사역팀과 울타리사역팀 사역 소개 및

질의응답과 상담을 한다. 우리나라 입양위탁 현황과 조건 및 절차, 보육원 현황과 자립준비청년 실태 및 지원 방법 등도 알려준다. 입양과 위탁, 보육원 아동 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GN과 함께하는 온누리 전문인선교학교 오픈 강의

6월 14일 오후 3시 30분

CGN과 함께하는 온누리 전문인선교학교(이하 OPMS) 오픈 강의를 열린다. 6월 14일(토)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흑인 빈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태후 목사가 '은혜의 경제'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수료자와 일반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수료자는 수료기수와 이름, 일반 성도는 소속 공동체와 이름을 문자메시지(010-45201517)로 보내면 된다. 회비는 없다. 문의: 010-4520-1517

알콩달콩부부학교 본부 18기 참가자 모집

6월 21일~7월 5일 매주 토

알콩달콩부부학교 본부 1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엘사랑교회에서 진행된다. 건강한 부부,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0만 원(부부당).

문의: 02-2182-9110

/ 박지혜 기자

달려라풍당 후원금 6월 20일까지 입금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제작 및 허입에 사용

2025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 풍당' (이하 달려라풍당) 후원금을 아직 입금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6월 20일(금)까지 후원 목표 금액을 CGN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 010-98304)로 보내야 한다. 후원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예: 김풍당 210215).

달려라풍당은 부모와 자녀, 공동

체 성도들이 함께 걷고, 달리면서 CGN을 후원하는 챌린지다. 올해는 지난 5월 10일(토)부터 24일(토)까지 이어졌다. 성도 2,600명이 참여해 현재까지 후원금 2,600여 만 원을 모금했다. 달려라풍당 후원금은 전액 가정과 차세대를 위한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제작 및 허입에 사용한다. 문의: 02-796-9800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성도 1,038명 참가, 3억6천여만 원 작성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성도 1,038명이 참가해 3억6천여만 원을 작성했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지난 5월 24일(토)과 25일(일) '세상 끝에 웃음꽃을 피워주세요'를 주제로 열렸다.

NGO 더멋진세상은 후원금을 총체적 선교를 실천하는 '더멋진마음 조성사업'과 자연재해와 분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직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은 전화(02-2271-2246)나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성도님이 후원금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더 많은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문의: 02-2271-2246

강남E공동체 맞춤형도집회 '(?)에 폭삭 빠졌수다'

6월 20일 오후 6시 30분 양재 온유홀

강남E공동체가 맞춤형도집회를 개최한다. 6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온유홀에서 '(?)에 폭삭 빠졌수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강남E공동체 맞춤형도집회에서

는 식사교제, 말씀, 공연, 전도 프로그램 등이 이어진다. 황진기 순장이 사회를 보고, 아나운서 김재희, 소통 강사 정혜미, 팝페라 가수 김예은, 마술사 류준환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010-2739-4433

/ 홍하영 기자

6월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 초대' 주제로 초대예배

서빙고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6월 한 달 '특별한 초대'를 주제로 초대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를 잠시 떠나있거나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드린다. 예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제출하면 중보기도도 해준다.

초대예배에는 특별 게스트가 출연한다. 6월 8일 가수 존노, 15일 배우 리키 김, 22일 연예인함창단, 29일 뮤지컬 배우 김경빈이 출연할 예정이다. 열린새신자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문의: 02-3215-3177

6월 화요성령집회 'UNITED'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6월 화요성령집회가 'UNITED'를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6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0일 최

성민 목사 '한마음으로 얻은 승리' (출 17:8~16), 17일 이서진 목사 '한마음으로 드린 기도' (삼상 7:3~12), 24일 최성민 목사 '한마음으로 나는 사랑' (고전 12:12~26)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AMA 협력교회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엘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장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실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8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8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كل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nsais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히카타타 마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이치 오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고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노규석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영길 김혜영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삼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광 김태용 김태만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지현 김성욱
럼보홍 문영재 박근보 박성은A
박성은B 박정현 박준영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준성 송영동
변대섭 서신기 송승진 신대홍
신원식 신현민 스티브 송동수
송재호 오서필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민 오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랍 이윤재 이진기
이진우 이호준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장준성
전신익 전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은숙
정현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환 조바래 조승광 조현수
전진희 최대홍 최성규 최선수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추대식 카이무라 요시카 하성희
하정훈 한하수 한창희 해롤드
하원희 황문규 황신연

◆전도사(전임)

김할솔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송예찬 안대진 유성하
유현우 이승호 이광목 임동연
장지훈 주하늘 최강호 홍근영
황유원

◆부목사(준전임)

권오환 구해미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반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보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국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경남
서영철 서대배 양현수 윤희배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임혜선
정요한 제인랑 최혜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구길복 권영찬 권영태 권평화
권형성 김기희 강경배 김기태
김동우 김만순 강명조 김미리
김민수 김민희 김빛나 김승희
김소망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복
김현정 김홍미 김희민 김희영
나기노 마사토 남 해 네우빠
네 페트리 문수진 미즈바을
파 권 박지미 박성준 박성훈
박시온 박요한 박용민 박우진
박이력 박종일 박진미 방예린
방진아 배윤주 서아연 서은규
서해진 손유태 송영덕 신호철
심은선 안루택 유 찬 유현하
오성민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옥순우 우수진 우승희 유석현
이민규 이만식 이승은 이시하라
이소라 이예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주영 이준영
이지영 이형준 임경미 이준희
장진우 장성열 장영주 장운식
전준호 정영현 정은영 정수은
정찬중 제영민 조기연 조민희
조승기 조영찬 조운식 차진일
지석구 지수정 주승환 차진일
최규중 최민정 최 은 최혜정
하예린 한용태 하영은 홍세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서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영한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선 김광진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남진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명택

김성목 김성순 김성인 김수광

김승목 김승우 김승배 김 원

김원규 김원국 김원중 김윤식

김의덕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찬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준홍 김진국 김창호

김형철 김형중 김희준 김희철

노재환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명환 박병기 박봉래

박상승 박순길 박승우 박승태

박영태 박영국 박우형 박일구

박종현 박진배 박대성 박형민

박홍규 배 문 배남인 백승웅

백종현 백홍기 백상선 서성렬

서진복 서재교 서형섭 송환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영대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익

신영각 신우권 신창학 신현중

심상환 심재욱 심창수 심춘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열 안영태

안국영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양종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광방 우승규 원우천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희 윤현기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병희 이두승

이민식 이부영 이백용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영경 이영희 이우곤

이용대 이재경 이재규 이재현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종수 이철남 이 철 이태환

이현열 이현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규환

장선정 장양희 장형준 장규영

전장하 전한백 정강무 정대서

정도영 정문규 정병규 정보민

정상기 정승중 정성원 정용화

정운오 정재택 정재현 정진호

정하영 정희호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진호 조정구 조성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차준구 차준한 최 명

최창규 최창수 한규중 한덕중

편무욱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함일성

허광수 허형식 홍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정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록 황용오 황의서

◆사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선 강상훈

강은철 강종도 강영주 광병철

고길범 고다이라 고희준 구자엽

곽선식 광명세 광희준 권오혁

권순형 권오승 권경하 권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명세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규 김상집 김상철

김진호 김성규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욱 김신원 김신철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록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C 김영환

김정호 김정호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환 김지하 김지현

김준원 김창식 김창원 김철민

김철주 김철주 김철수 김철진

김화수 김화수 김효구 김효구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김이규

주수일

차준한 최 명

최창규 최창수 한규중 한덕중

편무욱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함일성

허광수 허형식 홍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정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록 황용오 황의서

◆사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선 강상훈

강은철 강종도 강영주 광병철

고길범 고다이라 고희준 구자엽

곽선식 광명세 광희준 권오혁

권순형 권오승 권경하 권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명세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규 김상집 김상철

김진호 김성규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욱 김신원 김신철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록



2025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자세한 내용 QR>



총 상금 500만원

지원 기간: 25.5.21 ~ 25.6.22

공모 부문: 플랫폼별 주요 타겟에 맞춘 콘텐츠를 제안해주세요(택1)

TV	60대 이상 장년층 대상으로 한 TV 콘텐츠 포맷
풍당, 유튜브	2030 젊은 청년층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포맷